

3년째 실패 '아트광주' 과감히 없애거나 전문가들에 맡기거나

광주 유일의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가 위기 국면(광주일보 10일자 2면)을 맞고 있다. 관람객 뿐 아니라 갤러리, 컬렉터들에게 외면당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조직위원회는 취향 따라 소풍을 즐길 수 있는 '국제미술장터'를 열어놓고도 정작 시민·기업·컬렉터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의 부재로 썰렁한 전시장을 만들었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예산 부족·인력 부족 타령만 되풀이하면서 구색맞추기 행사로 추진할바에는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열리는 아트페어가 34개에 달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행사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3

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할 일 다했다"는 식의 운영으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반면 일각에서는 3년 동안 추진해온 행사를 폐지하는 데 따른 우려도 크다. "모든 행사가 3년이 고비인데 벌써 폐지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윤진섭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은 "3회 치러진 행사를 놓고 되나 안되나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다만, 작품이 팔리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나 차지단체가 미술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작가 미술품과 타 지역, 해외 미술품을 끌고와, 적극적으로 사들여 미술 시장을 키우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얘기가.

신항섭 미술평론가도 "지방에서 아트페어를 성공시키는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이 이러한 행사를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현재 문화재단이 운영을 맡는 방식은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미술계 인적 네트워크 부재 등 내부 역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제 3의 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울러 국내외 갤러리들과 기업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타깃별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전문 인력 육성·영입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겉기도 힘들어

폭우를 동반한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남해안 일대에 상륙한 17일 오전 여수시 덕충동 거리에서 한 시민이 거센 바람 속에 몸을 가누기 위해 인간힘을 다하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켜간 '산바'... "이만하길 다행"

여수·광양엔 침수 피해

나는 등 영남을 관통했다.

다. 또 여수 평도에서 최대순간풍속 43.9m/s를 기록하는 등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30~40m/s의 강풍이 몰아쳤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가로수(307건), 간판(9건), 표지판 등 모두 41건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다. 또 여수와 광양에서 서풍 15동이 침수됐으며, 여수 200ha, 광양 120ha 등 농경지 320ha

도 물에 잠겼다. 전남도는 여수, 광양, 완도 등 저지대 주민 87가구 208명을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기도 했다. 정전도 속출했다. 강진 1만3882호, 진도 1만2903호, 목포 1만964호, 여수 8922호 등 광주·전남에서 모두 6만1000호의 정전이 발생했다가 대부분 복구됐다.

반면 산바가 관통한 영남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에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을 덮쳐 집 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매몰돼 숨졌고, 경주에서도 1명이 산사태로 크게 다쳤다. 또 도로유실과 철탑붕괴, 침수, 정전 피해가 이어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17일 광주·전남을 비껴가면서 농어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산바는 여수에 상륙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이날 오후 11시30분께 남해군 상주면 부근 육상에 상륙했다. 이후 이날 오후 3시께 대구 부근을 지

나서 등 영남을 관통했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산바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을 몰아치면서 겹 태풍인 불라벤과 덴빈에 이미 피해를 본 전남지역 곳곳에 상층을 남겼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광양 백운산 321.5mm를 정점으로 여수 돌산 304mm, 고흥 257mm, 여수 230.7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

안철수 내일 출마선언... 국정 비전 제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오는 19일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관련기사 3·4면> 안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중정로 구세군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의견을 들은 과정과 판단을 국민께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안 원장 측의 유인영 대변인이 17일 전했다.

안 원장은 이 자리에서 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출마 배경과 '대선캠프' 참여 인사, 국정 비전 등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 원장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 며칠 내에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지난 16일 문재인 후보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하면 18대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 원장 간 3자간 대결구도가 된다. 특히, 문 후보와 안 원장 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향후 대선 판을 뒤엎을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안 원장은 대선 출마하면 '야권 필패'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단일화 방식 및 논의의 시점과 관련해 "정치적 담판", "여론조사", "여론조사-모바일·현장투표 병행"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제의 귀환' 신지애 브리티시오픈 우승

영광 출신의 신지애가 2주 연속 우승으로 골프여제의 부활을 알렸다. 신지애는 16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로열 리버풀 링크스(파72·665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브리티시여자오픈 정상에 올랐다. <관련기사 14면> 지난 주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플라크리머(미국)와 1박2일에 걸친 연장 혈투 끝에 1년10개월 만의 LPGA 투어 우승을 신고한 신지애는 3·4라운

드 경기를 잇따라 치른 강행군 속에서도 물오른 샷 감각을 발휘하며 2주 연속 우승을 이뤘다. 신지애는 강한 비바람 속에 진행된 4라운드에서 1타를 잃었지만 합계 9언더파 279타를 작성, 2위 박인비(이븐파 288타)를 9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08년 대회 우승 이후 4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은 신지애는 상금으로 41만8825달러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 ~ 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 ~ 30(금)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편백의 푸른 향기와 싱그러운 바다내음이
사람과 어울어진 곳 - 정남진 장흥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 정충군 억불산 지락 100ha 40년생 이상의 아름드리 편백수에 위치.
- 전통기와형, 황토형, 통나무형 등 총 18개의 친환경 펜션 운영.
- 무장애데크로드알레길(3.7km), 편백소금집, 비비예코토피아(풍목정), 목재문화체험관이 있어 다양한 웰빙체험
- 편백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해소와 항균작용에 탁월한 효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 정남진 장흥 토요일

- 전국 최초의 주말시장, 최고 품질의 저렴한 한우, 표고버섯, 키조개, 낙지 등 정남진 장흥의 웰빙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 고향의 훈훈한 정이 듬뿍 담겨 있는 할머니 정터 운영

제주의 관문 장흥 노력항 오렌지호

- 내치를 가지고 제주도를 가다 / 장흥 ↔ 제주도 2시간 20분
- 남도의 미항 노력항과 올레길의 시작점인 삼산항 매일 운항

장흥군
Jangheung County